

# 조국당 사람들의 몰염치

태평로



최원규  
논설위원

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그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사건'에 관여한 그는 지검장 허락 없이 출금 승인 요청서를 만든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와 별도로 김학의의 관련 조사 보고서를 날조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학의 접대 의혹 당사자인 건설업자가 부인했는데도 "건설업자가 '내 별장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온 것 같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만든 혐의다. 거의 창작 수준이다. 이렇게 날조된

조국, 법원 판결 무시하고 정치 사건 조작 검사가 "검찰 개혁" 정치 판사 "조국, 결연한 모습" 몰염치 시대, 세상 거꾸로 가는 듯

보고서 내용을 언론에 흘려 허위 보도가 나오게 만들기도 했다. 그러자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고, 그것이 김학의 불법 출금까지 이어진 것이다. 아무리 세상이 거꾸로 돈다고 해도 사건 조작 검사가 어떻게 검찰 개혁을 입에 올릴 수 있나.

김형연 전 법제처장도 그에 못지않다. 판사 출신인 그는 얼마 전 어느 유튜브 채널에 나와 "조국 대표가 유죄로 얻힌 것은 정치 검사가 검찰 개혁을 수호하기 위해 검찰 개혁 기수인 조국을 온갖 검찰권을 동원해 끌어낸 것이고, 그런 거역(검찰)을 척결하려고

입당했다"고 했다. 조 대표를 희생양인 양 묘사하면서 검찰이 해서는 안 될 수사를 한 것처럼 말한 것이다. 자녀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 확인서를 만들고, 문제인 정권 측 인사 감찰을 무마한 사람이 어떻게 희생양이 되고 그런 사람을 수사한 검찰이 어떻게 거역이 될 수 있나. 그럼 유죄 판결을 한 법원은 검찰에 놀아난 것인가. 판사를 했다는 사람이 일각의 '조국 동정론'에 올라타 사실을 비틀고 있다.

그는 "검찰 독재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결연한 모습을 보인 조 대표를 보고 용기를 냈고, 조국을 또 외롭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조국혁신당을 택했다"고도 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인 그는 문 정권 시절 등장한 정치 판사의 원조 격인 사람이다. 사법 개혁을 요구하다 문 정권 출범 직후 사표를 내고는 이를 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됐고, 그로부터 2년 뒤 법제처장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당시 민정수석이 조 대표였다. 그 처신을 두고 당시 법원 내부에선 "권력 옆으려고 법관직을 팔았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이젠 국회의원 되겠다고 조 대표를 향해 "결연한 모습" 운운하며 야부까지 한다.

조 대표의 몰염치와 안면몰수는 도를 넘은 지 오래다. 거기에 파렴치한 법조인들까지 가세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아무리 몰염치의 시대라지만 그 현실이 답답하기 그지없다.

김준의 맛과 섬 [183]

## 서산 감태바지락칼국수

"감태가 돌아와서 다행이여유. 집 나간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유." 서산 웅도 갯밭에서 만난 주민이 함치박에 감태를 담아 옮기면서 한 말이다. 집을 나가는 이유는 뭘까. 인간이라면 가장 많은 이유가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일 것이다. 바다 생물에 대해 물어보면, '서식지 환경 변화'가 큰 이유라 할 것 같다. 그 원인은 대부분 인간 탐욕이 만들어 낸다. 그리고 기후 변화 탓이거니와 남획 때문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어민을 탓한다. 우리나라 최고의 감태 산지라는 가로림만은 조력발전소 후보지에서 해양보호구역으로 바뀐 곳이다. 우리나라 30여 해양보호구역 중 최초로 '해양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감태는 겨울에 들어왔다가 봄에 나간다. 북서풍과 함께 찾아왔다가 훈훈한 남풍이 불 때 노랑게 변하고 녹아서 사라진다. 그런데 금년은 비도 많고 날도 춥지 않아 감태가 들어오지 않았다. 겨울철 효자였던 감태가 오지 않으니, 어민들 마음이 허전했을 것이다. 감태는 눈과 비를 맞고 추위를 견뎌야 씹살한 맛이 강하다. 가로림만처럼 바닷물이 들고 나는 차가 커 햇빛이 오래 노출되어야 한다. 그 향과 맛을 지키기 위해 전라도에서는 감태 김치나 무침에 마늘이나 생강을 넣지 않는다. 그 맛에 중독되면 매년 찾게 된다. 이 무렵 일 년 먹을 감태를 주문해 나누어 냉장 보관해 놓는다. 감태는 허리를 굽히고 손으로 뜯어야 한다. 그래서 감태를 맨다고 한다. 채취 못지않게 갯밭에서 운반하는 것이 힘들다. 감태



작업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어민들이다.

서산시 대산읍 발달 한 식당에서 감태바지락칼국수와 감태전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바지락칼국수는 어느 곳에 서나 맛볼 수 있지만 '감태바지락칼국수'는 귀하다. 게다가 바지락도 감태도 모두 마을 앞 갯밭에서 얻은 것이니 신선하다. 감태는 채취해 여러 차례 바닷물에 세척하고 마지막으로 민물로 헹구고 그늘에 사들 정도 숙성한다. 지금처럼 감태김으로 가공하기 전에는 절여만 맛볼 수 있었다.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 社 說

## '조국당' 상승세에 '이게 정상인가' 묻는 20대 청년들, 누가 답하나

조국혁신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유독 20대에서는 지지율이 낮다. 0% 인 조사도 있고 많아야 5% 정도에 불과하다. 본지의 서울 동작을, 중·성동갑 지역구 비례 투표 의향 조사에서 조국당은 전체 응답자의 20~22% 지지를 받았지만 20대에서는 두 곳 모두 2%에 불과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선 0%가 나온 적도 있다.

20대들은 2심까지 징역 2년형을 받은 조국 대표가 자기 이름을 딴 당을 만들고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이 유력한 상황 자체가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비현실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 20대 여성은 "범죄자가 유력 정치인이 되는 현실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 남미 같은 데서 벌어지는 일 아닌가"라고 했다. 다른 20대 남성은 "당명에 자기 이름을 넣은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했다. 이 밖에 "혹독한 경쟁을 해온 20대가 제정신이면 조국을 지지할 수가 없다" "조민 때문에 부당하게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수 부부 인맥을 총동원해 억지로 자녀에게 스펙을 쫓겨줬다가 적발당하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

조국당 대변인은 "20대에 다가가기 위해 당 차원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비례대표 당선권 10명 중 5명을 범죄혐의자로 공천해놓고 무슨 노력을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조 대표의 언행 자체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비현실

적이고 상식 밖이다. 조씨 일가는 고교생 딸을 전문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만드는 등의 파렴치하고 노골적인 입시 비리로 조 대표 2번, 정경심 전 교수 3번, 조민씨 1번 등 총 6번의 재판을 받았다. 결과는 모두 유죄였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한 번도 제대로 인정할 적이 없다.

조 대표는 재판 중에도 북 콘서트를 열어 책을 팔았고, 그의 딸은 연예인이라도 된 듯 각종 유튜브에 출연했다. 상품 광고도 했다. 재판부는 조씨 일가를 가리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했다. 그런데 조 대표는 "비법률적 명예 회복을 하겠다"며 출마했다. 총선 공약으로 '대학 입시 기회균등 선별제'를 내걸었다.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정치권의 청탁을 받고 부당한 감찰 중단을 지시해 직권남용 혐의로 2심까지 유죄를 받은 사람이 윤석열 정부가 직권을 남용한다고 탄핵을 말한다. 상상을 넘는 뻔뻔함이다.

그럼에도 조국당을 찍겠다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선거 자금으로 쓰기 위해 펀드를 모금했는데 1시간도 안 돼 200억원이 모였다고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혐오와 불만을 표출할 다른 길이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상식과 원칙을 무너뜨려선 안 된다. 그나마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20대가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행이다.



동영상 시청

## '천안함' 망언 5명 대부분 당선권, 유족들의 절규

북한의 천안함 공격으로 전사한 46용사의 유족들이 폭침 14주기였던 어제 경기도 평택 2함대사령부에서 추모 행사를 갖고 '천안함 망언 5적'의 사과를 요구했다. '망언 5적'이란 폭침 부정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도 이번 총선에서 공천을 받은 민주당 후보 5명을 가리킨다. 유족들은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유족들의 아픈 가슴에 다시 한번 비수를 꽂고 생존 장병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더 이상 천안함 피격 사건이 정치권의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이들은 22대 국회가 '천안함 피담 방지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천안함 폭침 이후 진북·좌파 진영을 중심으로 좌초설, 피로과 괴설, 미군 오폭설 같은 황당무계한 음모론이 판을 쳤고 민주당도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정부 조사에 대한 불신을 퍼뜨렸다. 당시 국회의 북한 규탄 결의안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70명 가운데 69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대표가 북한 소행임을 공식 인

정한 것은 사건 발생 5년이 지난 뒤였다. 그마저도 진심이라 보기 어려웠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천안함 폭침을 재조사하려 했다. 당시 국방 장관은 천안함 폭침을 "우발적 사고"라 했다. 천안함 폭침 주범인 김영철은 국빈 대접을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 천안함 폭침에 대한 괴담을 퍼뜨리고 생존 장병을 모욕한 것은 국회의원 결격 사유가 아닌 모양이다. 민주당이 인선 부평감에 공천한 YTN 노조위원장 출신 노종면 후보는 "천안함이 폭침이라고 쓰는 모든 언론은 다 가짜"라고 했다. 경기 화성병 권철승 후보는 전 천안함장들을 향해 "무슨 낯짝으로 얘기하느냐. 부하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고 했다. 이들을 비롯해 유족들이 '망언'으로 지목한 민주당 후보들이 대부분 당선 유력하다고 한다. 이들이 사과 한마디 없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 자체가 천안함 희생 장병과 유가족, 생존 장병들을 공격하는 것이다. 북한 살인범들을 돕는 것이다.

## 기술 유출범 '징역 최대 18년'으로 상향, 이것도 낮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산업 기술의 국내 유출은 최대 권고 형량을 징역 6년에서 9년으로, 국외 유출은 징역 9년에서 15년으로 각각 높였다. 특히 국가 핵심 기술의 국외 유출은 최대 징역 18년까지 가능하게 했다. 심각한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법원의 형량이 너무 낮다는 한국경제인협회 등 각계의 의견을 이제야 반영한 것이다.

양형 기준을 최대 징역 18년까지 높였지만 이는 상한선일 뿐 보통 선고되는 형량은 징역 10년 안팎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세계 주요국은 산업 기술 유출을 중대 범죄로 다룬다. 대만은 간첩죄를 적용해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 미국은 피해 액수에 따라 최대 33년 9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한다. 국내 다른 범죄와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기업 직원이 최근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은행 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은행 직원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와 나라의 미래를 빼앗는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이 이런 개인 횡령 범죄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앞으로 양형 기준을 더 높여야 하고 법도 필요하면 바뀌어야 한다.

판사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1심 사건 33건 중 무죄(60.6%)와 집행유예(27.2%)가 전체의 87.8%에 달했다. 2022년 선고한 영업 비밀 해의 유출 범죄 형량도 평균 1년여에 불과했다. 이리니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퍼져 기술 유출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판사들은 대개 기술 유출 범죄자들이 초범이거나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이 범죄는 성격상 거의 다 초범일 수밖에 없고, 범죄 이익을 떠나 국가에 미친 해악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경제 안보 차원에서 이 사안을 볼 필요가 있다.

## 누가 W 현금을 싫다 하겠는가

# 이재명, 아르헨·그리스·필리핀·베네수엘라행 편도 티켓 팔기 시작했다

이재명의 '마구집이' 공약 ... '아니면 말고'식 '세계 친중' 외치다가 갑자기 '현금 살포' 주장 이재명 당 폭주, 대한민국 말아먹게 생겼다

2000년대 [아르헨티나의 제2의 페론주의자]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양육비·실업수당·전기·교통 보조금·무상주택을 화수분처럼 퍼주었다. 돈을 은행에서 마구 찍어냈다. 살인적 인플레이가 뒤따랐다. 사상 최고의 재정적자를 내고 그녀는 퇴임했다.

### 현금살포는 나라 망하는 지름길

또다시 포퓰리즘의 달콤한 묘약(妙藥)이 대중을 중독시키는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

### 민중주의 발원국의 중우정치 포퓰리즘

1980년대 그리스는 [복지 원국]이었다. 파판드레우 사회당 정권 때였다. 그는 표를 얻기 위해 복지 확대를 멋대로 약속했다. 집권하자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무상교육, (건강보험 없는) 무상으로, 월세(月費) 국가 제공을 남발했다.

### 유지집이 왜곡한 아르헨티나 정치

<에비타>의 주제곡 [아르헨티나여, 나를 위해 울지 마라]의 주인공 에바 페론. 그녀는 노동자들에게 식량주책·교육·현금을 무상으로 퍼주었다. 경기는 침체하고 물가는 치솟았다. 국가 재정이 당연히 파탄 났다.

국가 채무비율이 1980년 22.5%에서 1983년 33.6%, 1993년 100.3%로 경증 뒤였다. 좌파 사회당 정부와 우파 신민주당 정부는 부채 통계를 조작해 가며 유로존에 가입했다. 그러나 유럽 각국은 퍼주기 정책을 그만두지 않는 한, 그리스에 더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통고했다. 정책을 바꾸자 공짜에 맞들인 대중이 폭동을 일으켰다. 폭동이든 가져오나?

### 우리보다 잘 살던 필리핀의 비극

필리핀의 에스트라다 대통령도 출마할 때부터 "가난한 사람을 위해 일하는 에스트라다"란 구호를 내걸었다. 그는 마닐라의 슬럼가 출신에서 액션 영화 주인공으로 출세했다. 그는 대통령 재임 기간 2억 달러의 현금과 여러 채의 호화 맨션을 취득했다. 도박산업의 뇌물도 받아 챙겼다. 그는 입가를 채 반도 못하고 필립스 파워로 쫓겨났다.

### '정연주 KBS'가 극찬한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나는 민중의 한 사람, 민중을 위해 싸울 것, 나의 정부는 민중의 정부"라 선언했다. 모든 경제활동에 국가가 개입하도록 했다. 그는 빈민가에 나가 방송이 중계하는 앞에서 다리 아픈 사람에게 목발을 사주게 했다. 차아가 나쁜 사람에겐 보철을 해 주라 했다. 그러나 그가 만든 사회주의화에선 굶주린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뒤졌고, 교사 출신 여성이 거리로 나섰다.

### 문재인식 현금살포 계승 이재명의 적반하장

문재인 5년의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케

어, 아등수당,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각종 현금살포는 한국판 [파판드레우의 퍼주기]였다. 국가부채가 400조 늘어나 1000조를 돌파했다.

그런데 이재명이 또 뭐, 공짜 돈 13조 원을 풀자고? 갓판 털어 나눠 먹자고? 나라 갓판이 '돈 나와라, 똑딱' 하면 저절로 채워지는 요술 주머니인가? 그래놓고 그는 26일 어느 유튜브 방송에 나가선 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자칫 아르헨티나가 될 수도 있겠다. 잘 나가면 나라가 정치가 후퇴하면서 망해버렸다." 오, 하느님!?!&#x26;

이 기이한 현상을 윤희숙 후보는 25일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풀이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됐을 때 회자하던 농담은 '저 양반은 인플레이 잡자며 돈 풀자고 할 사람이다'였다. 정책 분야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무식한 발언이 그것이다(서울경제 2024/03/25)."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컬럼으로 2024년 3월 25일 게재 되었습니다.

